

전임의 이탈 조짐, 2차병원 과부하... '3월 의료대란' 오나

전공의 집단행동 일주일

'피로누적' 전임의, 재계약 안할수도 2차병원서 비응급환자 등 떠안아 비상진료체계 붕괴 위기에 놓여

전체 70% 이상의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지 일주일여가 지나며 의료 현장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 전공의를 대신해 투입된 전임의(펠로우)들마저 이탈 조짐을 보이는 데다 비응급 환자를 떠안은 2차 병원의 역시 과부하가 겹치며 비상 진료 체계도 붕괴 위기에 놓였다. 의료 대란의 '3월 초 위기'가 현실화될 것이라 우려도 커졌다.

◆피로 누적, 전임의도 떠난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전공의 대부분이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총 9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체 전공의 규모가 1만3000명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70% 이상이 병원을 떠난 셈이다.



전공의 집단 이탈이 시작된 지 나흘째인 지난 23일 오전 광주 남구 한 2차병원에서 시민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시스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자리를 비운지 일주일여가 지나며 그들의 공백을 메우고 있던 전임의들도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탈 말미 계약 종료료를 앞두고 있는 전임의들이 병원과 재계약하지 않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인턴과 레지던트의 사직이 이어지자

이들을 대신에 초과근무를 하던 전임의들의 피로가 누적된 탓이다. 전임의는 전문의 자격 취득 후 병원에 남아 1~2년간 세부전공을 수련하는 의사다.

전임의 비중이 전체 의사의 10~20% 가량에 달하는 빅5(서울대·서울아산·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 병원은 전임의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

다. 전공의들의 공백이 큰 상황에서 전임의까지 자리를 비우게 되면 의료 차질은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 23일 보건 의료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코로나19 유행 같은 감염병 상황을 빼고 보건 의료 위기단계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차 병원 과부하도 우려 커져

의사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방의 경우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역 거점 상급종합병원인 전남대병원 본·분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319명 중 278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 중 200명 이상이 출근하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고 있다. 조선대병원은 전공의 142명 중 113명이 복귀 명령 불이행 대상자로 최종 확정됐고, 이들 모두 근무하지 않고 있다.

신임 인턴 대다수도 임용을 포기했다. 전남대병원에 입사키로 했던 인턴 예정자 101명 중 86명(85%)이 임용을

포기했다. 조선대병원에서도 신임 인턴 36명이 모두 임용포기서를 제출했다.

3차 의료기관들이 비상 진료 체계 운영에 따라 비응급 또는 회복 중인 환자를 조기 퇴원 또는 전원 조치하면서 2차 병원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대학병원으로 몰리던 외래 진료 환자들도 예약을 잡지 못하고 2차 병원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진료 대기 시간도 길어지고 있다. 상급 병원에서 소화하지 못한 수술까지 줄줄이 접수되면서 부담은 더욱 커졌다.

2차 병원 내 수술실·입원 병상 가동률이 꾸준히 증가할 경우 결국 각급 병원 내 진료 차질과 과부하가 발생할 우려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광주 모 대학병원 관계자는 "3월 초까지도 전공의 이탈이 이어지면 남아있는 의료진의 피로도 누적이 심각하고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과일·채소 이어 설탕 등 가공식품 값 급등

통계청, 설탕값 두달째 20%대 상승 소금 20%, 아이스크림 15% 등 인상 어획량 감소 '오징어' 매월 10% 올라

과일과 채소 값뿐만 아니라 설탕·소금·차(茶) 등 가공식품 가격도 최근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향 안정화 추세였던 수산물 가격도 오징어 등 국내 인기 어종을 중심으로 크게 뛰었다.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설탕이 2개월 연속 20%대, 소금이 4개월 연속 20%대의 소비자 가격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을 기록했다.

설탕 값은 지난해 8월 전년 같은 달에 비해 13.9% 오른 뒤 9월 16.9%, 10월 17.4%, 11월 19.1%로 오름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이어 12월(20.1%)과 올해 1월(20.3%)에 20%대까지 상승폭이 치솟았다.

소금 값 상승은 더 빨리 시작했다. 소금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전후로 천일염 품귀 현상 탓에 지난해 8월(13.4%)과 9월(18.0%) 10%대의 상승률을 보인 이후 10월(20.8%)과 11월(21.4%), 12월(22.3%), 1월(20.7%) 등



국내 한 대형마트에 설탕 제품이 진열돼 있다. 설탕은 해외 생산 감소 여파로 최근 전년 대비 20%대의 가격 상승폭을 보였다. /뉴스시스

년 달째 20% 선을 웃돌았다.

또 가공식품 중 아이스크림 가격이 12월과 1월에 2개월 연속으로 15% 넘게 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는 설탕 가격 급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초콜릿(12월 13.8%, 1월 13.9%)과 잼 가격(12월 13.0%, 1월 13.5%)도 각각 최근 두 달째 13%대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농식품부는 가뭄과 엘니뇨 등이 상기후 탓에 설탕의 주요 산지 인도·태

국 등지에서 생산량이 예년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봤다.

수산물에는 농산물에 비해 오름폭이 크지 않았으나 오징어의 경우 동해 어획량 감소 여파로 상승률이 매월 10% 넘고 있다. 오징어는 지난해 8월 이후 12월(8.3%)만 제외하고 전년동월대비 상승폭이 여타 수산 품목에 비해 컸다. 8월 13.5%, 9월 12.4%, 10월 16.5%, 11월 10.0%, 올해 1월 12.0% 등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육아휴직자 줄었지만 출생아수 대비 증가

고용부, 작년 육아휴직자 3.9%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급증

지난해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육아휴직자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크게 증가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2만6008명으로 전년 대비 3.9%(5076명) 감소했다. 다만, 출생아 수 감소 규모(-8.1%, -1만8718명)를 감안하면, 육아휴직 실제 활용률은 증가 추세다.

육아휴직 사용자는 돌봄이 가장 필요한 자녀가 1세 미만인 영아기 때 가장 많았다. 영아기 육아휴직자는 전체 육아휴직자의 67.0%(8만4488명)를 차지, 전년(64.3%) 대비 비중이 2.7% 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자녀 연령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급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3+3부모육아

휴직제' 도입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3+3 부모육아휴직제' 사용자는 2022년 1만4831명에서 지난해 2만3910명으로 61.2% 증가했다. 육아휴직자 성별은 여성이 82.0%(9만672명), 남성은 28.0%(3만5336명)였다. 여성의 77.9%는 자녀 1세 미만에 육아휴직을 사용, 출산후기에 이어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남성은 1세 미만 39.0%, 1세 이상 10.2%였고, 자녀의 초등 입학기인 6~7세 사용하는 경우는 19.2%였다.

육아휴직 사용자 수 감소는 출생아 감소 요인 외에도 올해 부모육아휴직제가 확대되면서 올해로 휴직 시기를 미룬 사람이 증가한 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모육아휴직제도는 올해부터 사용 기한은 자녀 연령 생후 12개월 내에서 18개월 내로, 지원 기간은 첫 3개월에서 6개월로, 급여 상한액은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으로 확대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삼성, 日 기업서 '2나노 GAA' 수주 성공

▶▶ 1면 '소외되는 삼성전자'서 계속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TSMC에 수출 등 기술력에서 뒤쳐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지만, 7나노 이하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TSMC와 '유이'한 생산 업체였던 만큼 지나치게 저평가된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특히나 3나노 '게이트올라라운드(GAA)'를 먼저 도입하면서 기술력도 크게 끌어올렸지만 여전히 외면받는 데에는 기술력 문제만이 아니라는 분석도

외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흔들리지 않는 기술 중심 전략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지난해 역대급 저조한 실적에서도 연구 개발비를 오히려 28조3397억원으로 전년 대비 20% 가까이 늘렸다. 메모리와 HBM은 물론 차세대 파운드리 공정 개발 비중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는 있다. 승부처로 삼은 2나노 GAA에서 일본 AI 기업에 수주에 성공했고, 퀄컴 등도 다시 삼성전자 수주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H

BM을 넘어 CXL 등 새로운 메모리 개발에도 한창, D램 미세 공정 기술에서는 '초격차' 전략도 구체화했다는 전언이다.

파운드리에서는 실제 수주 여부가 관건,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삼성전자에 비판적이었던 해외 매체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3나노 GAA에서도 TSMC에 비견할만한 수준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AI 반도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TSMC 생산 능력이 모 든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게 되는 수준, 선제적으로 클린룸을 확보하는 '웰퍼스트' 전략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도 크다. /김재용 기자 juk@

동물시험 대체 시험법 '오가노이드' 떠올라

▶▶ 1면 '4월 전세계 오가노이드'서 계속

'유럽 바이오 테크계의 거물'로 꼽히는 안드레 거스 대표도 참석한다. 그는 세계 최초의 동물대체시험 플랫폼 랩다 바이오로직스를 설립했으며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를 첫 파트너사로 선택한 바 있다.

ODC조직위원회의 주축인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오가노이드의 활용 관련 연구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오가노이드 컨퍼런스를 주최해 왔다.

작년에 열린 ODC23은 연구자·기업·정부기관 및 22개 후원사가 함께했고, 총 700명 이상이 참석하여 대표적인 오가노이드 국제 컨퍼런스로 발전한 바 있다.

2023년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기술의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채택되고, 전세계에서 동물 시험을 대체할 시험법으로 오가노이드가 떠오르면서 이번 행사에는 1200여명에 달하는 역대 최대 인원이 몰릴 전망이다.

ODC조직위원회는 "매년 ODC 개최를 진행하며 연구개발에만 머무르지 않고 오가노이드를 접목한 상용화 사례, 오가노이드 연구개발사와의 협력, 유관 분야와의 융합 등 다양한 측면으로 확장을 모색해 왔다"며 "세계를 대표하는 오가노이드 개발자들의 모임으로서 거듭나고 동시에 우리의 오가노이드 기술력이 글로벌에서도 부족함이 없을 증명하는 행사가 될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세경 기자